

목포시, 시민과의 대화 개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다양한 의견 수렴

시민이 정책주체로 참여·결정 소통행정 추진



목포시가 지난 20일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상그리아 호텔에서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전문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노후된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내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국비 9억, 도비 16억, 시비 25억)을 투입해 무장애거리 조성,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으로 추진된다. 참석 주민들은 ▲ 음악분수 앞 해상무대 설치 ▲ 상가 앞 도로 주차공간 확보방식 개선 ▲ 대형버스 주차시설 확충 ▲ 녹지공간 나무수종 제한 및 조형시설 확충 ▲ 인근 상가 및 주민 장기 주차 방지 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시장은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은 우리 시가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평화광장을 서남권 최대 도심속 친수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의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 7기를 맞아 시민이 정책주체가 되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공약사항, 정책현안,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다.

목포=백정수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쌍록도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쌍록도와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쌍록도’는 사슴 두 마리가 그려진 민화를 뜻한다. 사슴은 민화에서 뿔이 매년 자라나기 때문에 영생이나 영속의 의미로 ‘장생도’에도 등장한다. 또한 사슴 뿔이 하늘을 향해 자라난다는 점에서 하늘과 땅의 연결자이자 신선이 타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쌍록도’라는 명칭에서 쌍록(雙鹿)은 사슴 두 마리를 뜻하지만 쌍록(雙祿), 즉 복록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건강하고 화목하게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이벤트로 크리스마스 당일엔 체험패키지(민화관람+민화체험+4D가상

체험)를 이용하는 관람객들에게 루돌프 털실내화 또는 수면안대를 증정한다. 또한 한국민화뮤지엄 소장품 중 ‘쌍록도’를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루돌프로 단장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국 전통 그림인 민화 속 사슴과 서양 루돌프의 만남, 그 특별한 이벤트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제안해 본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민화뮤지엄 홈페이지(http://minhwamuseum.com) 또는 유선(061-433-9770)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2020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85억 원 투입

완도군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올해(60억 3,900만원)보다 24억 9,300만원 증가한 85억 3,200만원(국비 100%)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보길 선장리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외 18건, 계속사업은 금일 화목지구 소규모어항 정비사업 외 13개소이다.

특히 전년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어항 개발을 비롯한 마을 진입로, 관광지 정비 등 주민생활 및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 주민 숙원사업 등 민원 해결에 투자하여 예산 효율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금년도에 인허가 등 행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재정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함평군 신광면, 김장김치 나눔

함평군 신광면은 지난 18일 각급 사회단체와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여 경로당 32개소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하였다.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 등 5개 단체 60여명이 참여하여 직접 준비한 재료로 정성껏 김장 500포기를 담아 경로당 32개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공경과 사랑의 훈훈한 미담이 되었다.

함평=김광훈 기자

안수원 회장, 저서 300권 장흥군에 선물

500만원 상당 저서 300권, 재경 장흥군 향우에 전달

안수원 한국자치신문 회장이 500만원 상당의 자신의 저서 300권을 재경 장흥군 향우들에게 선물했다.

안 회장의 저서는 지난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경 장흥군 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책은 ‘천관녀’, ‘대통령의 눈물’, ‘억불산 며느리 바위의 전설’ 등 3권으로 안수원 회장이 직접 집필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출간한 ‘천관녀’는 안수원 회장의 첫 소설로, 삼한 일통의 주역 김유신과 그의 연인이었던 천관녀(千官女)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이다. 이듬해 세상에 나온 ‘대통령의



눈물’은 죽음을 선택한 대통령과의 옛 새 간의 이야기를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억불산 며느리 바위의 전설’은 백제(百濟) 건국을 둘러싼 토착 역랑에 대한 이야기로, 총 세 권의 소설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안수원 회장은 고향 장흥군에서 6년째 언론사 운영과 소설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흥=위지훈 기자

‘신안군, 겨울꽃 피는 섬’ 겨울 서정 사진 공모전 개최

아름다운 붉은 꽃, 동백 피는 신안에서의 사진 공모전

신안군에서는 ‘겨울 서정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애기동백 축제 기간부터 섬의 겨울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금상 3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10만원 등 총상금 1,0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내용은 신안군의 섬, 애기동백, 겨울풍경, 겨울바다 등 아름다운 신안군의 겨울풍경을 담은 사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인 4작품 이내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카메라 기종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드론 등 11*14(3,024×2,016픽셀 이상) 인화가능하다면 모두 응모 가능하도록 하여 공모전 참여도를 높였으며, 심사결과 발표는 4월에 시상과 전시는 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출품요령은 신안군청 홈페이지에서(www.shinan.go.kr)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안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안군청 관계자는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